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에 대한 연구: 가정, 학교, 정서 요인 비교검증*

정진성** · 장응혁***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발달범죄학이 제시하는 가정, 학교, 정서 요인을 포함하는 로짓 모형을 구축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의 4-6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79명의 청소년 가운데 315명(16.76%)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행을 저질렀고 그중 50명(2.66%)이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비행을 지속하였다. 비행의 발생에는 비행친구, 공격성, 학대가 정적 영향을 미쳤고, 규칙준수, 학습전념, 부모감독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비행의 지속에는 비행친구와 공격성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모감독만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비행중단 집단과 비행지속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4차년도에서 6차년도로 변할 때 비행을 지속하는 집단은 중단하는 집단에 비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별로 감소하지 않았고 공격성과 집중력부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감독의 평균 차이도 더욱 커졌는데, 결국 비행친구와 공격성은 비행지속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감독은 비행지속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부모감독을 비롯한 올바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유대감, 사회성을 함양시켜 비행친구를 멀리하게 만드는 간접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방식 강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증,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정 검증, 성별 차이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할 것이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9.30.3.163>.

❖ 주제어 : 비행지속, 발달범죄학, 비행친구, 공격성, 부모감독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책임저자,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청소년기의 비행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범죄곡선을 보면 10대 중 후반 정점에 달했다가 급감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일반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호기심과 충동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일탈을 시도해보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발달범죄학자인 테리 모핏(Moffitt, 1993)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청소년기가 되면 신체적으로는 성숙해서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하고 싶는데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불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기능(능력)과 사회적 역할(허용)의 차이인 ‘성장 격차’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학교를 가지 않거나 귀가 시간을 어기거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고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일종의 반항이자 독립선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반항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일탈을 멈추게 된다(정진성, 2023).

그런데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상호작용과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멈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거나 성인이 된 이후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사회적 기술마저 함양이 안 된 경우에는 계속 비행과 범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모핏은 이러한 소수의 지속적 일탈자들을 ‘생애지속 위반자(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s)’라 칭하였다. 다른 발달범죄학자들도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패턴슨과 동료들(Patterson et al., 1989)은 이들을 ‘조기개시형(Early Starters)’으로 분류했고,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 1993)은 이들이 ‘지속 경로(Persisters)’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달범죄학에 따르면, 비행을 지속하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집중력부족이나 공격성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잘못된 양육으로 애착과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며, 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바, 때로는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나쁜 친구들 집단에 가입하여 부족한 유대감을 채우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가정, 학교(비행친구 포함), 정서(성향이나 기질)와 관련된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부정적인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누적된 불이익’이 발생하여 자칫 범죄지속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행을 멈추지만 일부는 만성적 범죄인의 경로를 따라

갈 수 있다. 울프강과 동료들의 연구(Wolfgang et al., 1972; Wolfgang, 1983)에 따르면 만성적 범죄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남성 약 6%, 여성 약 1%)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비율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심각한 범죄의 경우 그 비중이 70% 이상으로 더욱 증가한다. 청소년기 비행과 성인기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커리와 테킨(Currie & Tekin, 2006)은 청소년기 비행이 성인기 범죄의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보고했다(김준범·정지영, 2017; Basto-Pereira & Farrington, 2022). 그렇다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비행 청소년이 만성적 범죄인 경로를 따라가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발달범죄학은 성인기에 비해 청소년기의 변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고 이후 지속하는 원인을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정서 요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국내에서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자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본 연구가 사용한 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분석해보면, 비행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3차년도에 11.54%(256/2218명)에서 중학생이 되는 4차년도에 16.83%(352/2092명)로 급증한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고등학생이 되는 7차년도에 14.70%(291/1979명)로 급증하였다(<부록 표1> 참고).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바뀌는 시점에 비행 측정의 변화가 심해짐을 시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안정된 측정을 보이는 중학교 시절에 국한해 분석을 시도했는데, 4~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학년 때는 왜 비행을 저지르고 이후 3학년 때까지 지속하는지 검증하였다.

II.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

1. 발달범죄학이 제시하는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발달과정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전통적인 사회화 이론들이 제시하는 비행의

원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은 사회화 과정의 여러 상호작용 속에서 유대(애착, 전념, 참여, 신념 등)가 약하게 형성되면 타고난 욕망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습이론(Sutherland, 1939; Akers, 1973)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비행에 우호적인 정의를 학습하거나 일탈행위를 모방함으로써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은 부정적인 양육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긴장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때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은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 등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 자기통제력이라는 정서요인(성향)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평생 비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사회화 이론들은 대부분 청소년 시기의 비행에 관심을 갖고 횡적으로 원인을 파악한다. 그런데 발달범죄학은 이들을 통합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 이후까지의 비행 궤적을 종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발달범죄학은 청소년비행의 발생 원인은 물론 지속의 원인을 파악하는데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간혹 사회화 이론 중에서도 자기통제이론과 같이 약한 자기통제력이 한 번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종적 설명이 존재하지만, 비행의 지속을 자기통제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ampson & Laub, 1993, 2003). 이에 발달범죄학은 개인의 성장과정 속에서 다양한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정서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비행의 시작과 지속, 중지, 재시작, 악화, 전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비행청소년의 극히 일부만 비행을 지속한다. 청소년기의 비행 지속은 자칫 만성적 범죄인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크다. 대부분의 발달이론은 만성적인 지속 경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생애지속 위반자’(Moffitt, 1993), ‘조기개시형’(Patterson et al., 1989), ‘지속 경로’(Sampson & Laub, 1993) 등으로 표현했다. 발달범죄학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손베리(Thornberry, 1987)의 상호작용이론에서도 유대, 학습, 비행이 서로 악순환하여 비행이 굳어지는 ‘행위궤적’이 존재함을 명확히 했다. 결국 청소년기의 비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가정 요인, 청소년기의 학교 요인, 부정적 양육의 결정체인 정서 요인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불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행은 단순히 결과변수로만 간주되는 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정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변수로도 작동함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성인기를 제외하고 청소년기의 비행지속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대나 방임, 비일관성 등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은 자녀의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한다. 첫째, 발달범죄학은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히 8세 이전의 어린 시절에 부모와 자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자기통제력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해 초래된 약한 자기통제력은 일반적으로 공격성, 충동성, 자기중심성, 위험추구성향, 단순함추구, 신체활동선호 등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잠재적 속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느낌에 덜 민감하고, 위험과 스릴을 감수하며, 근시안적이고, 비언어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평생 비행·범죄뿐만 아니라 무단결석, 가출, 과음, 조숙한 성관계, 학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며 심지어 스스로 피해자가 될 확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또한 정상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방해하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증가시켜 범죄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발달범죄학은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의 주장을 인용하여 잘못된 양육은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격화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평소 이러한 긴장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격화된 감정을 부모가 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에서의 유대가 부족해진 상황을 비행친구와의 유대로 대체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자녀의 반사회적 성향, 부족한 유대감, 문제행동,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자녀효과’(Sampson & Laub, 1993)를 초래하기도 한다.

반대로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훈육, 애정과 관심은 정서적 안정과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키고 관습적 가치와 문제해결방식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의 주장으로서 발달범죄학은 이를 받아들여 사회유대가 강력한 통제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샘슨과 라움(Sampson & Laub, 1993)은 성인기 이후에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축적되어 사회유대가 강하게 형성되면 ‘지속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사회유대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결코

있고 싶지 않은 가치를 가진다는 시각이 존재한다(Coleman, 1988; 신근화, 2018).

반사회적 성향과 가정 내 약한 유대, 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가게 되면 교사와 또래들의 부정적 반응이 초래되고 상호작용은 더욱 악화된다.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학업능력이 떨어지며 규칙을 준수하지 못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다가 10대 초중반이 되면 자신과 성향이 유사하거나 흥미로워 보이는 일탈을 저지르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반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더욱 심한 비행を 지속하게 된다. 이는 사회화학습이론(Sutherland, 1939; Akers, 1973)과 연관된 주장으로서 발달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비행친구집단에의 가입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간주한다(이상문, 2013; 이은주, 2008; 정진성·이훈, 2020).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의 학습·모방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적절한 사회성과 사회적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즉, 학교를 그만두거나 성인이 된 이후 비행과 일탈을 멈추고 싶어도 대안적인 상호작용과 구직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발달범죄학은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화 이론들을 통합해서 다양한 가정, 학교, 정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한다.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에 이르기까지 상호작용이 악순환되어 누적된 불이익이 발생하면 비행이 지속될 수 있고, 반대로 상호작용이 개선되면 지속 경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기의 비행지속이 자칫 성인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바, 특히 성인기보다 청소년기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국내 연구를 위주로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비행의 지속 요인

1990년대 이후 발달범죄학이 서구 범죄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이후 국내에서도 2010년을 전후로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수행되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면서부터 비행의 지속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

성화되었는바(곽대경·박현수, 2012),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양육방식을 비롯한 가정환경, 학습전념이나 규칙준수를 비롯한 학교환경, 공격성이나 산만함을 비롯한 정서적 요인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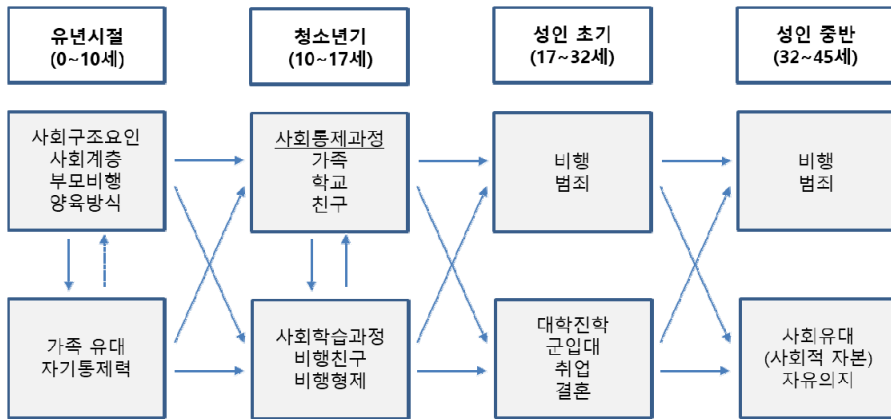
그런데 발달범죄학이 제시하는 온전한 과정을 실제 연구모형으로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예컨대, Sampson & Laub(1993)의 연령등급이론(생애과정이론, 인생행로이론)을 모형화하고 있는 [그림 1]을 보면 이를 실증연구에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몇몇 국내 연구들은 일부 관심 변수들을 특정한 상태에서 비행지속을 모델링하였다. 대표적으로 지영섭·강혜경(2021)은 주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으로 구성되는 사회유대 요인들을 검증했고, 권오용·이수진(2019)은 애착(부모애정, 부모감독, 교우관계, 친구신뢰)과 비행친구로 구성되는 유대와 학습 요인들을 검증했다. 김준범·정지영(2017)은 성장기의 학대경험에 집중해서 공격성과 학교부적응, 비행지속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을 검증했고, 하영진(2019)은 학대와 방임이라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소득, 고용, 건강, 교육, 사회참여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순래(2005)는 모펏(Moffitt, 1993)의 주장에 따라 약한 자기통제력, 흥분성, 낮은 인지능력 등 문제성형(정서적 요인)에 집중해서 이것이 친사회적인 관계형성을 방해하고 주변의 낙인을 초래하여 비행이 지속되는 과정을 검증했다.

비록 변수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들 연구는 각자의 목적에 충실하게 의미 있는 분석을 시도했는바, 지영섭·강혜경(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유대 요인들이 현실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¹⁾ 이와 유사하게 애착과 비행친구의 영향을 검증한 권오용·이수진(2019)의 연구에서는 애착 변수들 중에서 부모감독이 부적 영향을 미쳤고 비행친구는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대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검증한 김준범·정지영(2017)의 연구에서는 학대가 비행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공격성과 학교부적응을 매개로 순차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발달범죄학이 제시하는 것처럼 학대, 공격성, 학교부적응, 비행지속이 악순환하는 종적 과정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결과였다. 그런데 하영진(2019)의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 모두 비행지속에 영향을

1) 단, 사이버비행지속에는 참여가 정적 영향을 미쳤고, 유대관계(부모·교우·교사·지역사회 유대의 통합 요인)와 신념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미치지 못하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신 고용배제(부모의 실업)와 교육배제(낮은 성적과 사교육 무경험)가 정적 영향을 미쳤고, 동아리 활동이 없는 사회참여배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순래(2005)의 연구에서는 낮은 인지능력을 제외하고 약한 자기통제력, 흥분성, 친사회관계의 결핍, 사회적 낙인이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쳤는바, 정서적 요인과 누적되는 불이익이 비행지속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이 드러났다.

[그림 1] 연령등급이론의 설명모형



출처: 정진성(2023: 496), <그림 IX-1>.

한편, 국내의 일부 연구들은 본 연구의 취지와 유사하게 가정, 학교, 정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순래(2011)는 가정, 학교, 정서(개인성향) 요인은 물론 지역사회 요인을 포함시켰고, 곽대경·박현수(2012)는 가정(부모애착), 친구(경비행, 중비행),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 정서(자기통제력)와 자기낙인을 포함시켰으며, 박진희·김현주(2012)는 가정(부모애착, 부모감독), 학교(교사애착, 학업성취, 친구애착, 비행친구 수), 정서(자기통제력) 요인과 낙인(자기낙인, 주위낙인)을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는 다양했는데, 먼저 이순래(2011)의 연구에서는 가정불화,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측정된 가정의 위험요인, 학습, 규칙준수, 교사애착, 비행친구 등으로 측정된 학교와 친구의 위험요인, 공격성, 집중력부족 등으로 측정된 정서적 위험요인, 무질서로 측정된 지역사회의 위험요인이 모두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런데 곽대정·박현수(2012)의 연구에서는 친구(경비행, 중비행)와 정서(약한 자기통제력)만 대체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가정(부모애착)과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 자기낙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하게 박진희·김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 약한 자기통제력, 주위낙인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모애착, 부모감독, 교사애착, 학업성취, 친구애착, 자기낙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온전히 일관된 경향성을 말하기는 성급하지만, 대체로 비행친구와 정서(약한 자기통제력, 공격성, 흥분성 등)가 가장 일관된 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대와 주변의 사회적 낙인이 어느 정도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감독이 어느 정도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대로 부모애착이나 교사·친구에 대한 애착, 학습활동과 같은 유대 변인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 이론들에 대한 과거 10년의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진혜민·배성우(2012)의 연구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바, 메타분석 결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친구가 가장 컸고 이어서 자기통제력과 같은 정서 요인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유대와 긴장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현행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 원인을 파악하고자 개별 사회화 이론들과 발달 범죄학, 실증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가정, 학교, 정서 요인을 포괄하는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표 5>). 비록 [그림 1]과 같이 온전한 중단적 상호작용모형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중학교 3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킨 종합적인 모형이었다. 특히, 문헌분석을 토대로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는바,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감독’, ‘부모애착’, ‘학대’를 선정했고, 학교 요인으로는 ‘학습전념’, ‘규칙준수’, ‘비행친구’를 선정했으며, 정서나 성향문제를 대표하는 변수로는 ‘집중력부족’과 ‘공격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성별’과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더 다양한 변수가 모형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유사한 독립변수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고(정진성·장응혁, 2021) 동시에 모형의 간결성 원칙을 준수

하기 위해 숙고한 결과였다.

한편,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청소년비행의 지속 원인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아직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순래(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화 요인들 가운데 애착이나 감독, 학습전념, 규칙준수 등 긍정적인 요인들은 ‘보호요인’으로, 학대나 비행친구, 집중력부족, 공격성 등 부정적인 요인들은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비행친구와 공격성 같은 정서요인이 비행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분석 결과 비행의 지속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2년 이상의 비행지속여부를 이항(예 또는 아니오)으로 측정한 다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권오용·이수진(2019), 김준범·정지영(2017), 박진희·김현주(2012), 이순래(2005)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는 3년 이상의 비행여부를 매해 이항으로 측정한 다음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이나 생존분석 등 종단분석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곽대경·박현수(2012), 지영섭·강혜경(2021), 하영진(2019)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는 다년간의 비행수치(비행의 횟수나 비행종류의 개수)를 측정한 다음 성장곡선모형 등 종단분석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순래(2011) 등이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가장 많이 사용된 첫 번째 방식을 적용하고자 했다. 즉, 4차년도의 예측변수들이 4차년도의 비행발생과 4-6차년도의 비행지속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특히 비행지속은 로짓 모형을 구축해 검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에서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4~6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2,378명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패널소실(panel attrition)이 발생하여 4차년도에는 2,092명, 5차년도에는 2,070명, 6차년도에는 2,06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문항들에 모두 응답한 1,879명(남학생 993명, 여학생 88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 비행의 발생 및 지속

비행은 다음과 같은 14가지 행위들을 과거 1년 동안 저지른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조롱, 왕따, 패싸움, 폭행, 협박, 금품갈취, 절도, 성관계, 성폭력, 도박. 이때 두 가지 방식으로의 합산이 가능했다. 첫째, 각 행위의 경험 여부를 있다(1)와 없다(0)로 구분한 후 모두 합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 방식은 최대값 14 ~ 최소값 0으로 구성된 가산자료(count data)가 도출되어 음이항 회귀모형 구축이 가능했다. 둘째, 14가지 행위들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으면 있다(1), 전혀 없으면 없다(0)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 방식은 1과 0의 이항자료가 도출되어 로지스틱 회귀모형 구축이 가능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서 비행의 발생 원인을 보다 신중히 파악해보고자 했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4차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음이항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모두 적용하였다(<표 5>. 측정 결과 4차년도 기준 315명(16.76%)이 한 번 이상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었다(<표 2>).

그런데 비행의 지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리고 4~6차년도 조사에서 모두 ‘있다’로 측정된 경우만 비행의 지속으로 판단하여 1을 부여하였다. 즉, 중간에 멈추거나 멈췄다가 다시 비행하는 경우 등은 지속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곽대경·박현수, 2012). 전술한 대로 4차년도에는 315명이 비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115명이 5차년도에도 비행을 저질렀고, 이 115명 중 50명이 6차년도에도 비행을 저질렀다. 결국 비행의 지속에는 50명이 해당하여 전체 중학생의 2.66%가 3년 내내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15명의 비행청소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중 15.87%가 비행을 지속한 것이었다(<표 2>).

나. 독립변수: 가정, 학교, 정서 요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비행친구 포함), 정서 요인을 원인변수로 정하였는데, 가정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부모감독’, ‘부모애착’, ‘학대’를 선정했고, 학교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학습전념’, ‘규칙준수’, ‘비행친구’를 선정했으며, 정서(성향)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집중력부족’과 ‘공격성’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정서문제인 집중력부족과 공격성은 해당 연도에 설문지 실시 되지 않아서 3차년도와 5차년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표 1〉 독립변수들의 측정 문항 및 타당도, 신뢰도²⁾

변수		문 항	요인 적재량	크론바 알파
가정 요인	부모 감독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885	.754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890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693	
	부모 애착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757	.830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819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835	
학교 요인	학대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841	.855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741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880	
	학습 전념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882	.798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838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777	
정서 요인	집중력 부족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760	.824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863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763	
	규칙 준수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731	.824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721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835	
정서 요인	공격성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782	.776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776	

2) 집중력부족과 공격성은 3차년도 결과로서 5차년도 결과도 매우 유사했다.

변수		문 항	요인 적재량	크론바 알파
정서 문제	집중력 부족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690	.807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634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747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740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782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729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634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788	.817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777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807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800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726	

* N=1,879, Promax Rotation, 요인적재량 ≥ .600

부모감독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등 3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애착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학대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표 1>).

학습전념은 ‘나는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규칙준수는 ‘나는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등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비행친구는 앞서 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열거된 14가지 행위들을 저지른 친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학습전념은 유대의 4요소 중 전념(commitment)을 대표하는 변수였고, 규칙준수는 신념(belief in law)을 대표하는 변수로 볼 수 있었다.

집중력부족은 ‘나는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등 7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공격성은 ‘나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등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비행친구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1점(매우 그렇다)에서 4점(전혀 그렇지 않다)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수치가 커질수록 변수의 특성이 강해짐을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을 실시한 후 문항들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³⁾

3) 원래 설문 문항 중 다음 2문항이 개념적으로 불일치하여 제외하였다. 학습전념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표 1>은 비행친구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의 모든 측정 문항과 함께 측정의 타당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과 측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 알파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요인적재량과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에 대한 판단기준은 .600 이상이 있는바,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통제변수

비행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중요 변수들인 ‘성별’과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비행과 비행지속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사료되어 여성 0, 남성 1로 측정하였다. 경제수준은 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정형편으로서 1점(매우 잘 사는 편)에서 7점(매우 못 사는 편)으로 측정하였다. 이 역시 수치가 증가할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을 실시했다. 참고로 경제수준은 4차년도 설문에 존재하지 않아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⁴⁾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비행발생과 비행지속이다. 비행발생은 전술한 대로 가산자료 또는 이항자료로 측정이 가능했으나, 가산자료에 대해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하고 이항자료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비행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봄으로써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비행의 지속은 이항자료로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이 같은 인과모형을 검증한 다음 비행을 중단한 집단과 지속한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참고로 음이항 회귀모형은 가산자료로 측정된 비행발생이 정적으로 편포되고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산포 형태를 보일 때 가장 적절하다. <표 3>에서 4차년도의 비행발생은 왜도가 6.40이고 표준편차(분산의 제곱근)가 평균보다 훨씬 큰 과산포 형태로 드러나 음이항 회귀모형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4) 소득을 액수로 묻는 문항이 매년 존재하지만 미응답이 상당히 많아서 이용하지 않았다.

IV. 분석결과

1. 연구자료의 일반적 특성

가. 비행의 발생 및 지속

본 연구의 대상인 1,879명의 비행은 중학교 1학년 때 315명(16.76%)에서 2학년 때 236명(12.56%), 3학년 때 199명(10.59%)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1학년 때 비행을 저지른 315명 중 199명이 3학년 때까지 지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술한 대로, 315명 중 2학년 때도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11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바, 총 236명 중 121명은 2학년 때 새로 시작한 경우였다. 그리고 115명 중 3학년 때도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50명에 불과했는바, 총 199명 중 149명은 3학년 때 새로 시작했거나 2학년 때 멈췄다가 3학년 때 다시 저지른 경우였다. 결국 3년 내내 비행을 지속한 중학생의 비율은 1,879명 중 2.66%(50명)임을 알 수 있었다(<표 2>). 전술한 대로 4차년도 315명의 비행청소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중 15.87%가 3년 동안 비행을 지속한 결과였다.

<표 2> 비행의 발생 및 지속 비율(N=1,879)

	W4(중1)	W5(중2)	W6(중3)
비행발생	315(16.76%)	236(12.56%)	199(10.59%)
비행지속	-	115	50

한편, 비행의 발생을 가산자료로 측정한 경우의 기술통계는 <표 3>에 있다. 4차년도 비행은 최대값 14, 평균 .30이었고, 5차년도 비행은 최대값 11, 평균 .21이었으며, 6차년도 비행은 최대값 8, 평균 .19였다.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수가 감소한 것처럼 비행의 최대값과 평균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나. 독립 및 통제변수

<표 3>은 비행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의 연차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은 4차년도와 6차년도에만 측정되었다. 두 변수 모두 평균(2.50)보다 꽤 높은 수준에서 미세하게 감소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학대는 4차년도 평균 1.78, 5차년도 평균 1.63, 6차년도 평균 1.62로 평균보다 꽤 낮은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연구자료의 일반적 특성(N=1,879)

	W4(중1)			W5(중2)			W6(중3)		
	평균	표준 편차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대
비행	.30	.93	14.00	.21	.73	11.00	.19	.68	8.00
성별	.53	.50	1.00	.53	.50	1.00	.53	.50	1.00
경제수준	-	-	-	4.47	.98	7.00	4.31	.93	7.00
부모감독	3.30	.56	4.00	-	-	-	3.22	.58	4.00
부모애착	3.16	.57	4.00	-	-	-	3.12	.56	4.00
학대	1.78	.68	4.00	1.63	.62	4.00	1.62	.59	4.00
학습전념	2.93	.60	4.00	2.90	.56	4.00	2.92	.56	4.00
규칙준수	3.00	.54	4.00	2.93	.51	4.00	3.01	.51	4.00
비행친구	.94	1.90	14.00	.93	1.84	14.00	.80	1.56	14.00
집중력부족	2.25	.47	3.79	2.20	.54	4.00	2.18	.54	4.00
공격성	2.04	.50	3.70	2.00	.59	4.00	1.98	.57	4.00

* 비행의 왜도: 6.40(W4), 6.79(W5), 5.15(W6)

학교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학습전념과 규칙준수는 평균(2.50)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비행친구는 비행보다 평균이 3-4배 많았는데, 그래도 흐름은 비행처럼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 있었다.

정서 문제(성향)에 해당하는 변수들인 집중력부족과 공격성은 평균(2.50)보다 낮은 수준에서 미세하게 감소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은 5차년도 4.47에서 6차년도 4.31로 조금 나빠진 것으로 보였다.

2. 이변량 상관관계

인과관계 검증에 앞서 비행발생 및 비행지속과 관련 변수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 여기에서는 주로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해보고, 둘째, 비행의 발생과 지속에 어떤 예측변수들이 큰 상관성을 보이는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먼저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해보았다. 집중력부족과 공격성 간의 상관계수가 .67로 가장 컸고, 부모감독과 부모애착 간의 상관계수가 .55, 부모감독과 학습전념이 .43, 부모애착과 학습전념이 .42로 상당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런데 다중공선성 문제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공차’와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보고 ‘상태수 검증’을 실시하였다(정진성·이훈, 2021). 그 결과 추정된 회귀계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다(<부록 표2 & 표3>). 또한 본 연구의 예측변수들은 모두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매우 중시되는 변수들을 선정한 것이므로 분석모형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표 4〉 이변량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비행	1.00											
2. 비행지속	.36***	1.00										
3. 성별	.11***	.07**	1.00									
4. 경제수준	-.07**	-.04	.06**	1.00								
5. 부모감독	-.15***	-.12***	-.02	.14***	1.00							
6. 부모애착	-.11***	-.09***	.08***	.16***	.55***	1.00						
7. 학대	.11***	.06**	.12***	-.04	-.21***	-.32***	1.00					
8. 학습전념	-.18***	-.12***	.03	.17***	.43***	.42***	-.19***	1.00				
9. 규칙준수	-.21***	-.11***	-.01	.14***	.37***	.33***	-.11***	.53***	1.00			
10. 비행친구	.43***	.19***	.05*	-.02	-.04	-.02	.03	-.06*	-.11***	1.00		
11. 집중부족	.15***	.09***	.10***	-.15***	-.29***	-.25***	.22***	-.35***	-.29***	.05*	1.00	
12. 공격성	.17***	.11***	.06*	-.13***	-.23***	-.23***	.20***	-.26***	-.25***	.09***	.67***	1.00

*p <.05 **p <.01 ***p <.001

이어서 어떤 예측변수들이 비행의 발생과 지속에 큰 상관성을 보이는지 탐색해보았다. 예상대로 모든 예측변수들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행친구와 공격성이 두드러진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모감독과 학습전념, 규칙준수가 두드러진 부적 상관을 보였다.

3. 비행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먼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비행발생과 관련해서는 음이항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비행친구, 공격성, 학대는 정적 영향을 미쳤고, 규칙준수, 학습전념, 부모감독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애착, 집중력부족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이 정적 영향을 미쳤는바, 전체적으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주목할 점은 영향의 강도에서 위험요인은 비행친구 ≥ 공격성 > 학대 순이었고 보호요인은 규칙준수 > 학습전념 ≥ 부모감독 순이었다. 참고로 6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비행발생의 원인도 영향의 방향과 유의성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생략).⁵⁾

〈표 5〉 비행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행발생				비행지속	
		음이항회귀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		b	exp(b)
		b	Wald 카이제곱	b	exp(b)		
성별		.68***	31.57	.86***	2.36	.96**	2.60
경제수준		-.10	2.91	-.03	.97	-.14	.87
가정 요인	부모감독	-.22*	4.06	-.41**	.67	-.57*	.56
	부모애착	.08	.44	.10	1.11	-.21	.81
	학대	.23**	7.56	.23*	1.25	.08	1.08
학교 요인	학습전념	-.33**	9.47	-.31*	.73	-.53	.59
	규칙준수	-.40**	11.09	-.46**	.63	-.22	.81
	비행친구	.30***	204.50	.37***	1.44	.28***	1.33
점서 요인	집중력부족	.04	.06	.14	1.15	-.18	.84
	공격성	.54***	13.74	.45*	1.57	.91*	2.48
(우도비) 카이제곱		538.49***		310.93***		88.05***	

*p < .05 **p < .01 ***p < .001

5) 단, 5차년도는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이 측정되지 않아 분석하지 않았음. 집중력부족을 제외했을 때도 유의성의 방향과 강도에 변화가 없었음.

비행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비행친구와 공격성, 성별이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모감독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의 지속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된 결과였고, 비행친구와 공격성이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광대경·박현수(2012), 박진희·김현주(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부모감독이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은 흔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권오용·이수진(2019)의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비행과 무비행이 섞여 있는 1,87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집단은 중학교 1학년 때 비행을 저지른 이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비행을 멈춘 경우로서($n=162$), 이러한 비행중단 청소년들과 비행지속 청소년들을 비교해보면 어떤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지 엿볼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연구에서도 시도되었는바(광대경·박현수, 2012; 박진희·김현주, 2012), <표 6>은 4차년도와 6차년도의 집단간 평균비교인 t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⁶⁾ 먼저 4차년도 결과를 보면 비행중단 집단은 비행지속 집단에 비해 부모감독, 부모애착, 학습전념, 규칙준수 등 보호요인으로 간주되는 변수들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고, 집중력 부족, 공격성 등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변수들의 평균은 낮았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로 6차년도에 더욱 강해졌는바,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차년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비행친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새롭게 드러났는바, 이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지속에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이러한 t -검정 결과는 인과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인과적 결과를 보충하는 차원에서의 해석이 필요했다.

6) 5차년도는 부모감독과 부모애착이 측정되지 않아 t -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6〉 비행중단 청소년과 비행지속 청소년 비교

변 수	W4(중1)			W6(중3)		
	중단	지속	t	중단	지속	t
성별	.59	.74	-2.00*	.59	.74	-2.00*
경제수준	4.35	4.24	.64	4.26	4.16	.63
부모감독	3.16	2.89	2.65**	3.17	2.86	3.06**
부모애착	3.07	2.86	2.00*	3.09	2.95	1.72
학대	1.97	2.02	-.38	1.69	1.88	-1.56
학습전념	2.74	2.50	2.30*	2.83	2.47	3.86***
규칙준수	2.86	2.64	2.36*	3.01	2.65	4.07***
비행친구	2.01	3.12	-1.94	1.18	2.60	-3.78***
집중력부족	2.35	2.51	-2.20*	2.26	2.57	-4.04***
공격성	2.15	2.36	-2.81**	2.02	2.48	-5.56***

V. 결 론

본 연구는 가정, 학교(비행친구 포함), 정서적 측면을 종합하여 청소년비행의 발생과 지속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에서 중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4~6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1,879명의 청소년 가운데 315명(16.76%)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행을 저질렀고 그 중 50명(전체 기준 2.66%, 315명 기준 15.87%)이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 비행을 지속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행친구, 공격성, 학대, 성별은 정적 영향을 미쳤고, 규칙준수, 학습전념, 부모감독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애착, 집중력부족, 경제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중학교 3년 동안의 지속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행친구와 공격성, 성별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적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모감독뿐이었다. 남학생의 지속 비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결과였고, 비행친구와 공격성이 비행지속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선행연구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부모감독이 비행지속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은 혼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선행연구(권오용·이수진, 2019)에서 도출된 적이 있었다.

한편, 청소년기의 비행은 지속되는 경우보다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4차년도에 비행청소년 315명 중 지속이 50명, 중단이 162명으로 중단이 세 배 이상 많았다. 그렇다면 무비행 집단을 제외하고 범위를 조금 좁혀서 비행을 중단하는 집단과 지속하는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책적 차원에서 보충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4차년도와 6차년도 자료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비행중단 집단은 비행지속 집단에 비해 부모감독, 부모애착, 학습전념, 규칙준수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였고, 집중력부족, 공격성에서는 더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로 6차년도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강해졌는데, 비행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감독, 학습전념, 규칙준수의 강화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대로 정서 요인인 집중력부족과 공격성은 중단 집단에서는 평균이 감소함에도 지속 집단에서는 평균이 증가하여 정서 안정을 위한 개입이 꼭 필요함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4차년도에 없었던 비행친구의 차이가 6차년도에 유의하게 드러난 것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비행은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니지만 대부분 청소년이 비행을 중단하고 매우 일부만 비행을 지속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비행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비행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와 공격성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인과적 결과는 비행중단 집단과 비행지속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보충되었는데, 비행을 지속하는 집단의 특징은 중단하는 집단에 비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별로 감소하지 않고 공격성과 집중력부족은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행친구와 정서 문제(공격성, 약한 자기통제력 등)는 비행의 지속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드러났다. 발달범죄학은 어린 시절 경험하는 양육방식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유대감, 정서,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1차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주로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방식을 교육시키고, 아동의 인지발달을 개선시키며, 문제행동의 징후를 찾아내 초기에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정진성, 2023). 특히 올바른 양육방식은 자기통제이론에 따라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요소로 간주된다. 아울러 정서적 안정과 강한 유대감,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억제하는 요소로도 간주되는바(곽대경·박현수, 2012;

이상문, 2013), 여기에서 올바른 양육방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사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 중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감독이 비행지속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했다.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이 측정된 방식을 보면(<표 1>) 시시콜콜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는 과잉간섭의 차원이 아니라 상호 애정과 존중에 기반한 심리적 존재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허묘연, 2000; 황성현, 2015). 따라서 이는 긍정적인 양육 방식의 하나로 분류되는바, 부모감독이 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는 상당수 존재한다(이상균, 2012; 이서영·곽대훈, 2020; 정진성·이훈, 2021). 부모감독이 비행지속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는 t-검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중학교 시절 비행중단 집단의 부모감독은 약간 증가한 반면 비행지속 집단의 부모감독은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학습전념과 규칙준수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는데, 이 변수들은 부모감독과의 상관성이 작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표 6>). 즉, 학습전념과 규칙준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부모감독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이 실천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부모의 올바른 양육이 비행지속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를 온전히 부모의 책임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양육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강을 원하는 모든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김준범·정지영, 2017).

본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 및 보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발달범죄학의 주장을 토대로 비행의 발생과 지속을 탐구했지만 [그림 1]과 같은 온전한 발달모형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한 일방향 관계를 검증하는 데 그쳤다. 물론 온전한 발달모형 구축이 매우 어렵긴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드러난 비행친구와 공격성, 보호요인으로 드러난 부모감독이 비행과 더불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쌍방향 관계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성별이 일관되게 발생과 지속의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을 구분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애초에 성별 차이를 검증해보려 했지만, 여학생의 지속이 13명에 불과해서(표 생략) 안정된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 등을 검토하여 여학생의 비행지속에 해당하는 사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성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함의가 도출되리라 기대된다(박진희·김현주, 2012). 셋째, 선행연구에서 포함시켰던 공동체의식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이순래, 2011), 사회적 낙인이나 자기 낙인(자아 이미지)과 같이 누적된 불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곽대경·박현수, 2012; 이순래, 2005) 등이 포함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표본이 중학생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행을 지속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거나 가출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되는 현실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대경, 박현수 (2012). 청소년의 지속적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7: 45-82.
- 권오용, 이수진 (2019).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271-280.
- 김준범, 정지영 (2017). 성장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격성과 학교부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 49: 1-30.
- 나종민 (2011).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로서의 자아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종단적 상호작용 분석. 『형사정책연구』, 22(3): 359-389.
- 박진희, 김현주 (2012).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4(3): 75-96.
- 신근화 (201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2): 333-366.
- 이상균 (2012). 청소년기 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157-185.
- 이상문 (2013). 청소년 비행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Thornberry의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3): 221-258.
- 이서영, 곽대훈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Grit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6(1): 141-158.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4): 269-300.
- 이순래 (2011). 비행지속현상에 있어 위험요인·보호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범죄와 비행』, 1: 23-47.
- 이은주 (2008).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지속효과와 최신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1): 243-267.
- 정진성 (2023). 『스토리텔링 범죄학 I. 기초 및 이론』, 서울: 솔과학.
- 정진성, 이 훈 (2020).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 인과관계 검증: 성별 및 비행의 경중

- 에 따른 비교 「경찰학연구」, 20(2): 181-210.
- 정진성, 이 훈 (2021).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지위비행 간 쌍방향 관계 검증: 성별에 따른 자기회귀 교차지연 패널모형 분석. 「한국경찰연구」, 20(1): 351-378.
- 정진성, 장웅혁 (2021). 부모의 양육방식과 남자청소년의 비행 간 상호효과: 비행의 경중에 따른 자기회귀 교차지연 패널모형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23(1): 227-254.
- 지영섭, 강혜경 (2021).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초기 청소년 비행경험에서 비행 지속 중단을 이끄는 영향요인 검증: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4(2): 103-128.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하영진 (2019). 가족의 구조·기능적 특성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청소년의 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2): 575-586.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성현 (2015). 청소년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227-250.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kers, R. L. (1973).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 Basto-Pereira, M. and Farrington, D. P. (2022). “Developmental Predictors of Offending and Persistence in Crime: A Systematic Review of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01761.
- Brown, S., Esbensen, F., and Geis, G. (2013). *Criminology: Explaining Crime and Its Context*. 황의갑 외 12인 역(2015). 「범죄학: 범죄원인론, 형사정책, 범죄발생의 최근경향」, 그린.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urrie, J. and Tekin, E. (2006). "Does Child Abuse Cause Crime?", Working Paper, No. w1217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ottfredson, M.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ffitt, T.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Patterson, G. R., DeBaryshe, B., and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Sampson, R. J. and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and Laub, J. H. (2003). "Life-course Desisters?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9", Criminology, 41: 301-339.
-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PA: J. B. Lippincott.
- Thornberry, T.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863-891.
- Wolfgang, M. E., Figlio, R., & Sellin, T.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lfgang, M. E. (1983). "Delinquency in Two Birth Cohor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75-86.

〈부록 표 1〉 비행의 발생 및 지속 비율(전체자료)⁷⁾

	W3 (n=2,218)	W4 (n=2,092)	W5 (n=2,070)	W6 (n=2,061)	W7 (n=1,979)
비행발생	256 (11.54%)	352 (16.83%)	259 (12.51%)	219 (10.63%)	291 (14.70%)
비행지속 (4차 이후)	-	-	120	50	26
비행지속 (3차 이후)	-	85	37	24	13

〈부록 표 2〉 공차(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독립변수	공차	VIF
성별	.948	1.06
경제수준	.946	1.06
부모감독	.628	1.59
부모애착	.603	1.66
학대	.851	1.18
학습전념	.602	1.66
규칙준수	.671	1.49
비행친구	.980	1.02
집중력부족	.506	1.98
공격성	.543	1.84

7) 이 표는 전체자료의 5년간 비행발생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비행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3차년도에 11.54%(256명/2218명)에서 중학생이 되는 4차년도에 16.83%(352명/2092명)로 급증한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고등학생이 되는 7차년도에 14.70%(291명/1979명)으로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차년도 이후 4년간 지속한 비율은 0.66%(13명) 이었고, 4차년도 이후 3년간 지속한 비율은 1.31%(26명)였다.

〈부록 표 3〉 상태수 검증(Condition Number Test)

Concept	Eigen-value	Condition Index	분산 비율(Variance Proportions)										
			상수	성별	경제 수준	부모 감독	부모 애착	학대	학습 전념	규칙 준수	비행 친구	집중력 부족	공격성
1	.79	3.46	.00	.00	.00	.00	.00	.00	.00	.00	.97	.00	.00
2	.44	4.65	.00	.96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15	7.84	.00	.01	.01	.01	.01	.38	.01	.01	.01	.01	.02
4	.08	10.74	.00	.00	.01	.00	.00	.45	.01	.01	.01	.06	.13
5	.04	15.11	.00	.00	.87	.01	.01	.01	.04	.02	.00	.00	.00
6	.02	19.73	.00	.00	.01	.14	.25	.03	.27	.14	.00	.00	.05
7	.02	23.13	.01	.00	.00	.02	.01	.03	.21	.39	.01	.29	.40
8	.02	24.97	.00	.01	.00	.08	.02	.00	.42	.31	.00	.35	.35
9	.01	27.28	.00	.01	.00	.65	.65	.03	.01	.04	.00	.05	.05
10	.01	40.79	.99	.01	.09	.08	.05	.07	.02	.08	.00	.22	.01

A Study on Offending and Persistence
in Juvenile Delinquency:
Comparing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Propensity Factors

Cheong, Jinseong* · Chang, Eung Hyeok**

This study constructed logit models with family, school, and propensity factors to find the cause of offending and persistence in juvenile delinquency. Data of 1,879 adolescents from the 4th ~ 6th wave of the fourth graders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KCYPS 2010) were analyzed, discovering that 315 students (16.76%) committed misbehavior in the 4th wave year (during the period of the 1st grader of middle school), and 50 out of the 315 delinquents continued misbehavior through the 6th wave year (up until the period of the senior grader of middle school). Delinquency offending was positively affected by delinquent peers, aggressiveness, and parental maltreatment and negatively affected by rule-abiding, commitment, and parental supervision. Whereas, risk factors such as delinquent peers and aggressive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persistence in delinquency, and a protective factor of parental supervision appeared to be able to stop the continuity. Good parenting skills including supervision are well known for helping stabilizing temper. Also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values, bonds, and sociality are strengthened through good parenting, which helps avoiding delinquent peers. Thus, systematic efforts to improve parenting skills are indispensable among governments, school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Future research requires testing more diverse factors, interac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nd gender differences.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 Key words: Persistence in Delinquency, Developmental Criminology, Delinquent Peers, Aggressiveness, Parental Supervision

투고일 : 8월 28일 / 심사일 : 9월 22일 / 게재확정일 : 9월 30일
--